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사랑하며, 신앙을 실천하자.

사목교서
토드 데이빗 브라운
오렌지 주교

일 마 전에 참석했던 한 집회에서, 라 푸리시마 본당 학교의 쾌활한 학생 성가대의 흥겨운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만 보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그 공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서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것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의 하나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네!” 하고 노래하자 나머지 대원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사랑하며, 신앙을 실천하리, 알렐루야!” 신앙을 배우자고 노래할 때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켰고, 사랑하자고 하면서는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았으며, 믿음을 실천하자고 노래하며 크

고 넓은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¹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톨릭 신앙을 위한 이런 참된 열정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며, 오렌지 교구의 교형 자매 여러분에게 사목 교서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한분 한분 모두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는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멋진 모양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저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느꼈음직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분이 묘사하는 대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이 첫 번째 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신앙에 대한 안이한 마음이 짐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나, 마르코는 사랑하는 공동체에 다가오고 있던 박해를 명확하게 예견하고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난날의 감동적인 사건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중에 하느님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마르코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가 권유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도록 어떻게 힘을 북돋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깊은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힘이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시험에 들자 그분을 부정했던 베드로 성인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께 더욱 더 전념하고, 그분의 희생적 모범을 더 가깝게, 기꺼이 따르라고 청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입니다.

요즈음이 가톨릭 교회에 평온한 시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르코 성인과는 달리, 저는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소명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교회를 통한 소명이 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고통스러운

¹ “신앙을 배우고, 사랑하고, 실천하자!” 성 지니 드 레스토낙 학교 교감, 로저 밉클 박사 작곡

것으로 경험했던 분들의 하소연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용서를 청하고 그분들과 화해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소홀하지 맙시다. 전교팀과 사도직 단체들의 열심한 개별 방문 노력을 비롯하여, ‘커밍홈’과 같은 지원 단체들 및 관련 부서들과 함께, 각 분당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신앙역정에서 마주치게 하셨던 개개인들, 특히 교회에 의해 상처를 받았거나 버림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치유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적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청합니다. 저는 우리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고 이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 교구 내 어디에서든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비롯하여 새로운 마음가짐까지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하지만, 상처보다는 무관심 쪽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리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들은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2학년 어린이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른 학년들로 오면서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곤 합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 몇몇 학교의 경우, 전체 가톨릭 신자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 다른 주교님들과 함께, 제가 매년 부활 시기에 견진 성사를 드리는 분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들 대부분이 봉사 활동 임무를 완료하고 견진 과정에서 얻은 체험으로 고무된 열정적인 십대들입니다. 그들을 견진 성사로 이끌었던 그 열정이 왜 점차 식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 착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다른 것들로 옮겨가 버리고, 그들 중의 아주 일부만이 남아서 봉사 활동과 청소년 모임에 제대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결혼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남녀들에게도 같은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교회가 제공한 결혼 준비 과정이 좋았다고 하며, 하느님 앞에서 서로에게 하는 서약의 성사적 성격을 잘 인식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그들 중에 극소수만이 제대로 본당에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심지어 부활 때 세례를 받도록, 사순절마다 제가 선발예식을 집전했던 수백 명에 달하는 성인들-가톨릭에 입교하는 그 전례에서 그토록 뜨

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던 그분들- 중에도 너무 많은 분들의 가톨릭 신앙이 해가 갈수록 희미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우리의 교리 교사와 일반 교사들 중에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심육성 기본과정의 수료증조차 획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먼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음을 적절히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분들이 받아들인 신앙의 정확성과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어린이들이 견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 가톨릭이 오랜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이지만,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소위 “쉬고 있는 가톨릭”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쉬고 있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많은 분들의 노력-너그럽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과 정성이, 인생 행로를 가는 동안, 자신들의 가톨릭 신앙을 지탱하고 계속하여 그 실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운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비록 주님을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점점 더 우리 일상 생활의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과 정성이, 인생 행로를 가는 동안, 자신들의 가톨릭 신앙을 지탱하고 계속하여 그 실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각자 새롭게 다짐을 하셨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중 지도적 위치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교구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을 추려내기 위한 노력에 참여했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과 이 노력을 도왔던 레이드 앤드 어

소시에잇사의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최종 보고서인 “모두가 함께 하나 되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제안들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들을 통해 제가 방금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교구와 본당들과 학교 그리고 여러 신앙 공동체들의 모든 교육 담당 부서들이 발전과 영적 쇄신을 목표로 하여 이

안건들을 다루어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략적이고 획일적인 개선책들은 교우 한분 한분이 모두 자신의 신앙을 더 잘 깨닫고 사랑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고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단 순히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거나 열심히 다거나 헌신적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세에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천들을 세상 안에 육성해 내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²

저는 이 일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가득 차 있거나 너무나 바쁘거나 너무나 할 일이 많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지 못하게 되고 성스러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됩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고, 밀려드는 일들과 씨름하느라 시간과 신경을 쓰고, 가족들을 돌보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기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교회의 성사 생활에 꾸준히 참여하는 일들이 점점 더 우리의 의식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세에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천들을 세상 안에 육성해 내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안락함과 풍족함으로 인해 자만에 빠질 수도 있으며, 이 시대에 점차 늘어만 가는 비속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약화시키고 실족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돌고 있었던 것은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다가는 결국 하느님께서 어디로 가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II. 개인적 약속을 드립니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의 하나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존경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가톨릭 신앙의 진실성을 그들의 개인적 신심의 깊이로 판단합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미국인의 기질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자아 인식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보고 각자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실 것을 청합니다.

- 당신은 영적인 안주에서 벗어나 방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인정받고 즐기고자 하는 욕망만큼 성스러움에 대하여 강한 매력을 느낍니까? 만일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 삶의 한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그 성스러운 자리에 다시 모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 당신의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유아기적 신앙의 기초 위에 성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 제대로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과 불만을 가진 채로는, 그 신앙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위화감을 주거나 독선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면서, 다시 말해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 사람들이 신앙에 관하여 당신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여 물어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당신의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당신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해박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 믿음이 자유를 받거나 더 성숙하게 자라거나 순수하게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싶거나 더 충실한 실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이 당신의 생각을 정립하거나 나아갈 길을 확고하게 하거나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하고 친절하며, 더 자신감이 있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헌신적이 되도록, 신앙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² 요한 바오로 2세, 우리 시대의 교리에 대하여, no. 61.

합니까? 더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신앙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마음의 혼란이 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하여 신앙이 필요하십니까?

-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신앙에 관해,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청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III. 명확한 믿음

복음주의 교회 형제 자매들의 합당한 주장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을 자기 자신의 주님이시자 구원자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약속을 명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 전통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운데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구세주의 명령, 특히 가난한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함께 해나갑니다. 비록 내가 받은 것을 완전히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믿음은 단순히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톨릭 신자들은 응답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참여합니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는 정치, 문학, 약학, 사업과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인상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교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각기 타고난 문화 안에서, 관습에 맞추어 각자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가치 체계와, 지역사회 안에서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정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사회가 뒷받침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 환경에서 성장했던 간에, 우리 대부분이 자라났던 때와는 사뭇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일종의 삼투작용에 의해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신앙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던 문화 안에서, 또 그 문화를 통하여, 신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즉, 가족들이 명절날들을 축하하던 방식에 의해, 우리의 목에 걸려 있던 성물들과 침실 경대와 자동차 앞 창턱을 장식했던 성상들에 의해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신앙적 모범들을 지켜보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인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우리의 지친 영혼들은 어두운 성당에 들어설 때 풍겨왔던 향냄새에 의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욕망과 행위들은 교회의 높은 도덕적 기대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우리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으며, 너무도 일상적이고 편안해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으며, 현 미국 사회에 대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다 보면, 게임 쇼에서 백만 불의 상금을 따기 위하여, 또는 “리얼리티” 쇼에서 처음 보는 잘생긴 남자의 선택을 받는 예쁜 여자가 되기 위하여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탐색 엔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정보나 이미지를 찾아 나열할 것이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큰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많은 영화들 중에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외설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 공동체의 일원,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든지 사고 팔 수 없는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 사회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간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소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 문화를 비판하거나 사회악을 슬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문명 사회가 우리가톨릭의 품격과 신념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가톨릭 신자들이 좀 더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려해 동안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 불평을 해 왔지만, 이제 이 영향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오늘날 더욱더 반문화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욱더 반문화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오늘날 더욱더 반문화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이 소비 경제의 차가운 현실주의나 개인적 충동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톨릭 신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있는 것

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나친 광고 공세에 현혹되어, 초고속 컴퓨터나 가장 멋진 자동차, 또는 어떤 다른 신상품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출세를 바라거나 더 풍족한 생활 양식, 또는 세속적 성공이 주는 여러 이점들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똑같아 집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성공한 미국의 소비자보다, 헌신적이고 열심한 가톨릭 신자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가톨릭 신앙 안에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여, 예수님께서서 되라고 하시는 성인이 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과욕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 다른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IV. 함께 노력합시다.

채신운동, 선교하는 제자들, 꾸르실료, ME 등의 가톨릭 운동들을 통하여,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함으로써,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더 쉽게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와 협의회, 기도 모임, 본당 집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앞으로 수개월간 시간을 내어, 현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마태오 26:41)라고 경고하십니다. 피정이나 본당 행사에서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이 새로운 열정이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가지 원인이 우리의 육체가 현재의 안락함을 선호하고, 그저 현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 발아래 마루 바닥에 누워 잠을 자며 너무도 만족해 하는 사랑스런 강아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들은 발전을 향해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당신이 체육관에 가면 만나게 되는 개인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은총은 말씀하시며,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면서도, 자주 이 말씀에 완강하게 저항하곤 합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하며, 우리의 적금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죄악, 폭력, 학대 등에 의해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할 것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지식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고 가톨릭 신앙을 어느 정도나 실천해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건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로 청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이러한 소양들을 기증하여 첫 사도들을 뽑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V.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발견

바로 성인께서는 고린도인들에게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2고린도 13:5)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 경이로움을 실감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도 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의 의무로서, 또는 어떤 요구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라고 하니까마지 못해 따르는 식으로, 또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에 지나지 않는 신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께로 와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복자 마더 테레사께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마음 속에 현존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성 유스티노와 성 보니파시오와 같은 순교자들을 고난 가운데 지탱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후니페로 세라 복자께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까지,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먼 길을 걸어서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들께서 증언하시는 바이지만, 교회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 내 목소리가 아닌, 나를 힘있게 이끄시는 한 동반자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나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위험이나 칼입니까?”라고 바로 성인께서는 묻습니다. “아닙니다. 우

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로마서 8:35-37 참조)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다고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들, 슬피하고 온유한 사람들, 굶주리고 박해 받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하고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마르코 9:24) 우리는 축복 안에 있든 어려움 안에 있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겨 드리고, 의혹과 불안의 때에조차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VI.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에 의탁하기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 영역 저편의 것이고, 우리가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또 믿음은 우리의 이기심과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조차 넘어서서 우리를 저편으로 끌어 당기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힘있는 겨자씨이고, 이 겨자씨는 더 힘있는 나무로 자라납니다(마태오 17:20 참조) 그 믿음은 우리와 함께 변화합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가 체험했던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어른인 우리에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12학년 때의 믿음이,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나, 어느 외과의사나 교사, 또는 경찰관이 맞닥뜨리는 어떤

재난이나, 또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어떤 사람에게 충분한 믿음이 수가 없습니다. 중년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청년기에 자신을 이끌어 왔던 그 별빛이 자기 인생의 다음 단계를 비추어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말년에 새로운 의혹이나 의문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작가인 프래너리 오코너는 자신의 삶 안에서 이 어려움을 맞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내 안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당신이 전에 알았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더 작은 존재였을 지도 모릅니다.”³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 영역 저편의 것이고, 우리가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또 믿음은 우리의 이기심과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조차 넘어서서 우리를 저편으로 끌어 당기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VII. 믿음을 사랑하기

어느 현자가 언젠가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들이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마시오. 만일 그들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아름다움이 사그라져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까요? 만일 그들이 당신의 재치와 매력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예리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들이 당신의 재능이나 솜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시대에 처지고 시적 영감이나, 고도의 운동 감각을 잃게 되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거나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왜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존경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만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몇 년 전 토론토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신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일이 더욱 더 긴급한 일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풍부한 전통과 신학적 탁월함, 그리고 예술 분야의 업적들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인들과 신비가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모범 때문에 교회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상한 사제, 수도자, 또는 본당 교우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끌리며,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그들의 피신처이자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인격과 기상을 심어주었던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일부는 세상 끝 날에 교

“믿음의 본질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³ 프래너리 오코너, 존재의 습성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9.) p. 353-354.

회가 새롭게 빛나는 천상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동경합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지만,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속성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가 우리의 기대치나 희망에 미치지 못할 때조차도 이 사랑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죄인들의 교회이며, 항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실망을 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에도 참된 사랑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환멸에서 오는 괴로움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더욱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작고하신 오스카로메로 대주교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VIII.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실천하기

어떤 분이 최근에 본당에서 교리교사를 하기로 한, 성 요셉 병원의 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교리교사로서 봉사를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교리교사 인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조차도 거르고, 기진맥진한 12시간 병원 근무를 교대하는 즉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피곤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만일 집으로 돌아가서 다리를 뻗고 누웠다고 해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간호사인 것처럼 뛰어난 교리교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기에, 만일 여러분이 그녀에게 희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일이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녀가 참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단지 편하고 재미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며,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이 언제나 그렇게 희생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희생을 우리가 바치고 싶은 것으로 만듭니다. 수월하게 받아들였던 믿음이 사랑으로 희생을 바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IX. 흘러 넘치는 믿음의 발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플라테리니 오코너는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

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2고린도 8:2)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비용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푹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흘러 넘칩니다.

소위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급적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삼가면서,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친구를 사귀며,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들은 흘러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X. 믿음의 은총에 대한 감사

하지만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톨릭적 삶의 중심축은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이며, 이 성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주어졌으며, 당신의 아드님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받드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내려주신 이 믿음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고, 영구히 다른 것과 구별되며,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XI. 끝으로 드리는 말씀

먼저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 편지를 읽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참여도를 숙고해 보시라는 저의 제안을 들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바람처럼,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실천을 새롭게 하시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심을 육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와 본당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주보를 보시면, 필요하신 정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심 육성에 대한 자료를 더 읽고자 하신다면, 이 편지의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

입니다. 하느님의 축복 아래, 우리 모두가 가톨릭 신앙을 배우고 사랑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교가 해야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단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냥 따르며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태도가 현재 옳지 않음이 분명하며, 설사 옳다 하더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가톨릭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기꺼이 저와 함께 노력하시자고 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믿음을 더 심화시키고자 애쓰는 분들에게 제가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현명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가톨릭 신자들이 되기 위하여는, 사제들과 부제와 수도자, 교사, 교리교사, 집행위원, 자원봉사자, 부모님들과 일반 신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



오렌지 주교

추천 도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저서

“우리들의 가슴이 불타고 있었다. 미국의 성인 신심육성을 위한 사목안”
“미국 가톨릭 교리”

“가톨릭 사회 교육 나눔: 과업과 지침.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제안”

“교리 교육 지원을 위하여: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성명”

“예수님처럼 가르치기 위하여: 가톨릭 교육에 관한 사목 교서.” 미국의 주교들이 이 시대를 초월한 성명서에서 메시지와 공동체, 사업 주제별로 요약함.

“자녀들과 가족들을 첫 자리에: 우리 교회, 나라와 세계를 위한 도전.” 아동들을 돌보는 도덕적 종교적 기준을 제시.

“가서 제자로 삼아라: 미국 내 가톨릭 전교를 위한 전국적 계획 및 전략”(10주년 기념판)

“스튜워드쉽: 사도들의 응답: 스튜워드쉽에 대한 사목 교서”(10주년 기념판)

교황청 자료:

“교리교사들을 위한 일반 지침 (GDC)” 교리교사에 대한 총론과 그 목적, 기본 요소들을 포함.

“가톨릭 교회의 교리”

“요약: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톨릭 신앙의 모든 기본적 요소들을 간략하게 종합한 것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요약본임.

짚어보아야 할 질문들

본당 신자들에게:

1. 지난 수년간 나의 하느님 체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무엇이 이 변화들이 일으켰는가? 살아오는 동안 하느님의 모습 (또는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2.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 가지를 잠시 시간을 내어 헤아려본다면, 신앙이나 교회 문제, 또는 하느님과 나와 관계는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3. 나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저해하는 지속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자신의 부족한 신앙심에 대해 의아함이나 속상함, 또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용서하며 치유하고 극복하게 될 것인가?
4. 본 사목교서의 서두에서, 주교는 현재 성인 신자들 가운데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7 가지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뜻밖의 이야기로 들리는가? 자신이 이 중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고 있거나 않은가?
5.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톨릭 신앙에 대해 공부를 했던 것이 언제였나?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있는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 실천을 쇠신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앞으로 6 개월 동안에는? 내년에는?
6.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이라는 전제아래 매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까? 나 같은 성인들의 신앙교육을 본당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면 사목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사목위원회, 각분과 사목위원들, 그리고 단체 임원들에게:

1. 내가 가정 안에서, 주일 전례 참여와 올바른 판단들에서, 그리고 영성과 기도 생활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가?
2.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본당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나의 열정을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3. 오늘날의 세대에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목위원회나 단체들을 분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우리의 문화는 자녀들과 교육, 건강과 경제적 소득,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도록 격려하는 문화이다. 평생의 신앙 교육을 이러한 최우선 과제의 하나에 포함시키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을 바쳐야 할까?
5. 교회가 교육 사목을 함에 있어서, 성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가? 가톨릭 신자로서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평생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사목자나 단체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6. 우리 본당에서 성인 신앙 교육이 우선 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평생 교육을 기본 전제로 하고 매사를 바라보게 될까?

사목자들에게:

1. 나 자신, 영적으로 표류를 해본 적이 있는가? 기도와 성무에 대한 애착이 성공적인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큼이나 강력한가? 기도와 전례, 그리고 내가 사목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2.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사람들, 특히 본당 신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평생 교육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가?
4. 위선적이거나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의 신앙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지식과 교육만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사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인 신앙 교육을 우리 본당의 우선 과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신앙 교육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매사를 바라보게 될까?
6. 주교의 사목교서가 나에게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목자로서 어떻게 변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이 교서가 우리 임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